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2>

근본을 붙잡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진짜 좋은 솜씨는 졸렬한 솜씨와 같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들보 재목이 찌부러진 것이야."

問 大巧若拙時如何
師云 喪卻棟梁材

대교약졸(大巧若拙)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이전 구절은 대직약굴(大直若屈)이다. 즉, '가장 곧 바른 것은 굽은 것과 같다'는 말이다. 대교(大巧)는 최고의 솜씨를 말한다. 어느 방면의 최고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졸렬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난초를 잘 치는 전문가는 가끔 난초 잎을 꺾어서 땅에 흐드러지게 닿아있는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파격의 미'라 해서 난초의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간주하고 있다. 뛰어난 목수는 곧은 대들보만 고집하지 않는다. 굽은 것도 잘 쓰면 오히려 멋이 된다.

스님도 훌륭한 스님은 계율에 끌려가지 않는다. 계율을 끌고 간다.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이나, 대안 스님, 그리고 조선 시대 진묵 스님, 근대의 도인 경허 스님 같은 분들이 바로 계율을 끌고 간 사람들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계율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스님들을 보고 때로는 욕을 했지만, 그 분들은 계율을 끌고 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조주록>도 잘 살펴보면 조주 스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원래 진정한 고수가 되면 별도의 형식을 세우지 않는다. 마음은 원래 무궁무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道)를 깨달으면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문하 대중에게 설법했다.
"나는 불(佛)이라는 글자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을 위해 일하지."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깊은 뜻은 알리지 못하고 한낱 생각만 피곤하게 할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이미 '깊은'이라고 말씀했는데, '뜻'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근본을 붙잡지 않아."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깊은(玄)이 아닙니까, 뜻(旨)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뜻(旨)이야."

師示衆云 佛之一字吾不喜聞
問和尙還爲人也無
師云 爲人
學云 如何爲人
師云 不識玄旨徒勞念
學云 旣是玄 作麽生是旨
師云 我不把本
學云 者箇是玄 如何是旨
師云 答你是旨

조주 스님의 "깊은 뜻은 알리지 못하고 한낱 생각만 피곤하게 할 뿐이야."라는 말 한 마디에 선의 깊은 묘미가 다 들어있다. 역대 선사들은 한 결같이 "평생 한 말 때문에 지옥에 간다느니", "일평생 한 마디로 안 했다느니…" 등등의 말을 남겼다. <조주록>에서도 조주 스님은 남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깊은 뜻을 알리지도 못하고 공연히 사람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선사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사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선법(禪法)에 맞기 때문이다.

진정 고수는 별도의 형식을 세우지 않는다
한번 도를 깨달으면 모든게 도가 되기 때문

조주 선사의 법은 항상 "근본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불성, 자성, 법성, 실제리지(實際理地) 등이 근본이지만, 조주 스님은 그 근본조차도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무 것도 붙들고 있는 것이 없다. 선문에서는 그 근본을 한번 봐버린 후에는 곧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놔버린 사람들은 부처[佛]라는 말에도 별 흥미가 없다. 참[眞諦]을 터득한 사람들은 부처라는 말도 버려야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참[眞諦]을 터득한 사람이라면 문자나 명자는 큰 의미가 없고 뜻에도 의미가 없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문자나 형상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각자에 선(禪)이 있고 각자에 도(道)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선이란 무엇이며, 도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어떤 학승이 물었다.
"각자에게 선이 있고 도가 있으면 저 옛 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해온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자 함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십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몸을 뒤로 빼고 말하지 않았다.

師示衆云 各自有禪各自有道 忽有人問你 作麽生是禪是道 作麽生祇對他
僧乃問 旣各自禪道 從上至今語話爲什麽
師云 爲你 遊魂
學云 未審如何爲人
師乃退身不語

석가모니불의 대승불교 근본 교리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도리이다. 이것을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등에서 그대로 표현해 놓았다. 대승불교의 교리를 가장 먼저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은 보살이다. 보살은 세속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었고, 또한 부처님과 동등하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비구들은 여전히 보살과 다른 수행자 집단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 평생 수행하면서 살았을 뿐, 부처와 같은 행이나 지혜를 별로 드날리지 못하고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됐다.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을 비구들이 적나라하게 실천했던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 선종은 자성은 원래 부처라는 말을 철저히 믿었고, 깨달음을 이룬 선사들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지하고 부처님 이상 가는 많은 선법(禪法)들을 창안했다. 이것이 오늘날 동양의 선불교의 뿌리이다.

원래 선과 도는 사람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역대 선사들이 한번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배우지 않아도 선을 말하고 도를 말해서 선불교가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들은 다만 후학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무엇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중생은 스스로 위대한 부처이다. 때문에 한번 미몽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익히고, 부처로서 가야할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간다. 선사가 이 외에 달리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⑬ 조주어록(趙州語錄)

통독할 만한 깊이 · 맛 · 사상이 있다

선의 진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 언전불급(言詮不及)이라 해 그 본질에 대한 표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반의 어록에서는 일종의 방편으로 방(棒)과 할(喝)과 같은 제스처로 표현되기도 한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언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질문에 응해 상대방을 설득해 선문답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이었다. 일찍이 원오극근이 그 가풍에 대해 '입술에서 빛이 난다'고 평가한 것은 참으로 적확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조주의 일상의 문답을 모은 것이 <조주록>이다. 그 명성만큼이나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세간에 유포됐기 때문에 <송고승전> 권11의 조주전에도 '그 어록이 세상에 널리 유행하였다'고 기록했다.

화순 쌍봉사에 봉안된 조주 선사 영정.

조주(趙州)라는 명칭은 그가 후반생을 보낸 하북의 조주지방을 가리킨다. 옛적 전국시대에는 조(趙)라는 나라가 있었다. 본래 조주종심은 마조도일 – 남전보원– 조주종심으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계보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종사의 위상보다도 120세의 장수를 누리면서 오랫동안의 제방을 유행하고 주지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로는 지방정권의 수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는 숱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독자적인 가풍을 드날린 점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당 말기의 하북지방은 빈번하게 정권이 교체돼 끊임없는 전란에 휩쓸렸다. 그런 까닭에 조주 자신의 말처럼 조주선원은 늘 상 끊임없이 오고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 결과 조주 문하에는 오랫동안 상주하는 제자들도 드물었기 때문에 여타 오가의 조사들과 같은 법계도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히려 일가의 계보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 오가의 독특한 가풍과는 별도로 모든 가풍을 구비한 조주의 보편적인 선풍이 이후 선종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조주의 전기는 <조당집> 권18, <전등록> 권10 및 <송고승전> 등에 나타나 있지만 젊은 시절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강남에서 수행한 이후에 하북에서 할거하고 있던 조(趙)와 연(燕)이 수령에게 초빙돼 고향에 가까운 조주에서 주석할 수 있었다.

<조주록>은 그의 젊은 제자였던 문원(文遠)의 기록이지만 중국의 북지에서는 전란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그다지 널리 전승되지 못했다. 후당의 보대 11년(953) 새롭게 권수(卷首)에 그 행장이 추가되고, 이어서 여산(廬山)의 서현보각선원(棲賢寶覺禪院)의 징시(澄諟)가 3권의 본문을 교정했다. 징시는 법안종의 제3세인데, 임제계통의 관계로 보자면 황룡혜남의 젊은 시절의 스승이기도 했다.

징시가 교정한 <조주록> 3권은 남송 초기에 복주 고산에서 <고존숙어요>의 일부로서 중간(重刊)됐다. 그 판본은 다행스럽게도 현존해 중국 선록의 최고(最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그 이후에 출현한 원 · 명의 제본을 통해 <조주록>은 늘상 위의 중간(重刊)을 모본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이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겨우 명대 말기 운문원징(雲門圓澄 : 1561~1626)이 서문을 붙인 유포본과, 청나라 옹정제가 칙수(勅修)한 <어선어록>의 판본이 약간 개편을 보인 것에 그쳤다.

조주의 언어는 송대 공안집에 보편적으로 널리 채용됐다. 가령 <설두송고>는 100칙 가운데 13칙, <굉지송고>는 100칙 가운데 8칙, <무문관>은 48칙 가운데 7칙이 수록돼 있다. 특히 <무문관>의 제1칙에 수록된 무자공안은 무릇 선을 참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주어지는 공안으로서 선의 대명사처럼 돼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주 자체가 공안선의 창시자처럼 간주되면서 <조주록>은 언제부턴가 그다지 널리 읽혀지지 않게 된 것은 아이러니다.

'입술에서 빛이 난다'고 평가된 조주의 언어는 실은 무자공안 한 칙만으로는 요약할 수 없는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조주의 풍부한 개성에 맛들인 선문답의 묘미는 <무문관> 이후에는 거의 그 향기를 상실해버리고 시들어 마침내 추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입술에서 빛이 난다'는 평가조차도 이미 조주의 말을 유형화(類型化)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조주선의 전체적인 이해는 그 다방면에 걸친 문답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말의 난세에 120세의 생애를 살면서 제방의 승속에 응대한 조주의 언어는 무한한 깊이를 보여주는 선문답의 가능성을 훌륭하게 제시해준 사례의 하나였다. <조주록>은 그 전체를 통독할 만한 깊이와 맛과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어록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 (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 (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